

주요산업의 최근 동향

李 揆 哲

〈중소기업중앙회 기획조정실 차장〉

一. 概 況

9월까지의 산업활동은 생산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出荷도 계속 부진을 보이고 있어 在庫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생산은 자동차 및 화학제품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년 동월(9월)에 비해 7.3% 증가에 그쳐 신장률도 전월의 8.4% 보다 둔화되었다.

出荷는 기계장비, 섬유 등의 부진으로 생산 증가율보다 낮은 5.1% 증가에 머물렀고 在庫는 반도체 및 전자부품, 철강제품 등의 부진으로 증가율이 20.4%나 되는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여기에 제조업체의 가동률도 전월의 83.5%에서 81.5%로 2%p 하락하였으며, 투자활동은 국내 기계수주와 건설수주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었다.

이처럼 최근의 국내경제동향은 생산과 투자 신장률이 저조하고 출하가 부진한 가운데 재고증가율은 높아가고 제조업체의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무역적자 및 무역외적자의 지속으로 1~10월 수출입차의 누계는 167.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1~9월 누계로 경상수지 적자가 170.9억달러에 이르는 등 매우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二. 주요 업종별동향

〈자동차〉

9월중 자동차 생산은 수출신장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13.7% 증가한 228천대에 이르렀다.

內需는 전반적인 국내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수요의 위축으로 전년동월대비 4.8%, 전월대비로는 2.5% 감소한 119천대에 머물렀다.

車種別로는 승용차가 준중형급 및 중형차의 판매부진으로, 商用車는 트럭수요 저조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5.7%, 2.5% 감소하였다.

업체별로는 쌍용자동차와 대우중공업이 전년동월대비 20~30%의 내수신장세를 보인 반면 현대자동차는 소형승용차의 판매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10% 이상의 감소를 나타냈다.

수출에 있어서는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업계의 다각적인 수출확대 노력과 해외판매망 확충,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내의 본격화 등에 힘입어 전년동월대비 23.4%, 전월대비로는 10.4% 증가한 95천대에 달하였다.

지역별 수출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의 수출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20.1%, 8.9% 감소한 반면 그동안 수출이 부진했던 歐美와 中南

美지역으로의 수출은 현대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의 수출호조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7.2%, 65.7%의 증가를 보였다.

한편 국내 完成車업계는 1차 부품협력업체의 대형화 유도 및 부품조달 경쟁입찰제의 도입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個社는 영세한 규모의 1차 부품협력업체를 2차 하청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95년말 현재 1,700여개에 달하는 1차 협력업체를 2000년에는 1,200여개로 단계적으로 축소를 하는 한편 완성차업체의 일부 부품조달라인을 1차 부품협력업체로 이양하는 등 1차 부품협력업체의 대형화를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등 일부 완성업체들은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협력업체 선정에 있어서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경쟁입찰시에는 去來關係가 없는 국내업체는 물론 외국부품업체의 참여도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 부품업체간의 인수·합병 및 기존 계열협력관계의 해체 등 국내부품업계의 구조개편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단위: 台, %)

	1995. 9월			1996.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200,912	10.8	12.7	228,466	3.2	13.7	2,050,958	13.2
· 出荷	202,385	8.6	20.5	214,460	2.9	6.0	2,019,102	10.9
(內 需)	125,014	2.9	△2.1	118,983	△2.5	△4.8	1,191,880	7.0
(輸出) ¹⁾	77,371	19.3	81.4	95,477	10.4	23.4	827,222	17.2

註1) 자동차공업협회자료로 관세청 수출통계와는 차이가 있음에 주의

<전 자>

9월중 전자산업의 수출은 주력수출품목인 반도체가격이 작년의 20% 수준까지 하락한

데다 엔貨약세의 영향으로 가정용전자와 산업용전자의 가격경쟁력도 크게 떨어져 전년동월대비 21.0% 감소한 3,135백만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부문별로는 가전제품의 경우 러시아, 中東, 中南美 등 신흥시장에서의 호조에도 不拘하고 엔貨약세의 영향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수출감소세가 심화되어 전년동월대비 2.4% 감소하였으며, 品目別로는 VCR, 음향기기, 에어컨, 전자렌지 등의 부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전자는 휴대용전화기, 컴퓨터 本體 등의 본격적인 수출再開에도 금액 비중이 큰 모니터의 수출증가세의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7.7% 증가에 그쳤다. 전자부품은 세계적인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LCD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나 반도체, CPT 등 주요품목의 수출부진이 지속되어 전년동기대비 32.7% 감소하였다.

특히 반도체는 PC업체 등 수요처의 재고조정이 마무리되면서 歐美市場의 9월 반도체 출하액 대비 수주액 비율이 0.99%까지 높아져 가격반등 여건이 성숙되고 있으나 주력수출품목인 16M DRAM의 국제현물가격이 금년들어 가장 낮은 9달러선까지 떨어져 전년동월대비 46.8%의 수출감소를 보였다.

최근 PC업계는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치열한 경쟁에 의한 가격인하 압력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年末 성수기를 앞두고 핵심부품인 TFT~LCD, CPU

전 자 (단위: 백만\$, %)

	1995. 9월			1996. 9월			96. 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수 출	3,968	3.7	49.2	3,135	4.1	△21.0	30,278	0.6
가 정 용	661	7.4	4.5	646	△0.1	△2.4	5,831	4.6
산 업 용	653	10.4	38.8	704	9.9	7.7	5,593	10.7
부 품	2,654	1.3	70.9	1,785	3.9	△32.7	18,854	△3.1

등의 구독난까지 겹쳐 생산차질등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일반기계〉

9월중 일반기계류의 생산은 1/4분기 이후 계속되는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에서의 발주증가에 힘입어 국내기계수주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으로써 10%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부문의 기계류수주는 석유정제, 음식료품, 조립기계, 자동차, 운수업, 농림수산업 등의 발주 증가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8.1% 증가하였으나, 公共部門의 기계류수주는 부두하역시설, 발전설비 등의 발주 감소로 28.6% 감소하였다.

수출은 화학기계가 전년동월대비 42.3% 감소하였음에도 섬유기계 및 운반하역장비기계가 전년동월대비 각각 73.4%, 33.5%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으로써 일반기계의 수출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어 전년동월대비 3.2%의 감소를 보였다. 한편 지난 7월이후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보이면서 96년 1~9월간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52억 1,400만불에 그쳤다.

輸入은 화학기계, 제지, 인쇄기계 및 운반하역기계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19.1~30.2%의 증가세를 보였음에도 섬유기계, 냉동공조기계 부문에서 각각 전년동월대비 57.5%, 20.4%의 높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한 16억 1,7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얼마전 까지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던 수입은 9월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6.3% 증가한 157억 1,10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국내 공장자동화산업의 내수시장은 공장자동화에 대한 경영자층의 관심고조로 1990년 이후 연평균 15~

20%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간 1조 5천억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수증가에도 자동화설비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내수의 50%정도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무역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기계 (단위 : 백만\$, %)

	1995. 9월			1996. 9월			96. 1~9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수 출	548	△3.2	40.6	479	△0.8	△12.7	4,663	5.9

〈철 강〉

9월의 조강생산실적은 재고증가와 추석연휴로 인한 생산가동을 저하로 전월대비 2.6% 감소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3% 소폭 증가한 3백 5만 6천 M/T에 그쳐 부진한 편이었다.

전기로제강은 減産추세가 5개월여나 지속되어 더이상 생산축소가 어려워진 가운데 전월비 0.4% 증가한 1백십일만6천 M/T을 생산하였으나 輕爐製鋼의 조강생산량은 1백9십2만 M/T으로서 전월비 4.3% 줄었다.

철강재 市況은 활발한 공사계획에 따른 건설사들의 구매 증가로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추석연휴로 인한 판매일수의 부족 및 설비투자의 해외이전의 확산 등 부정적 요인이 겹치면서 경기를 크게 호전시키지는 못하였다.

수출은 물량감소와 단가하락의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16.5% 줄어든 454백만달러에 머물렀으며, 수입도 전년동월비 33.5% 감소

철 강 (千M/T, 百萬달러, %)

	1995. 9월			1996.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粗鋼生産	2,967	△0.4	9.3	3,036	△2.6	2.3	29,041	7.2
輸 出	544	6.9	16.5	454	△2.7	△16.5	4,396	△21.1

한 508백만달러의 기록에 그쳤다.

〈석유화학〉

최근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은 합성수지의 경우 소폭 오름세를 나타냈으나, TPA 등 합성원료의 경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석유화학제품의 가격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개도국들의 활발한 新·增設에 따른 세계 전반에 걸친 공급과잉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월중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물량기준의 수출호조 및 합성원료의 內需회복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관련 산업의 수요부진으로 최대 수요품목인 합성수지의 내수증가세가 크게 위축되어 전월에 비하여 저조한 업황을 보였다. 우선 生産은 합성원료와 합성고무의 경우 공급능력의 확대와 가동률 제고에 힘입어 호조를 보였으나 최대 생산품목인 합성수지의 수요부진으로 전월대비 1.5% 감소하였다.

내수용출하는 화섬업계와 고무제조업체에서 그 동안의 수요부진에 인한 재고감소에 대비한 구매를 확대함으로써 합성원료와 합성고무를 中心으로 전년동기대비 14.7% 증가한 반면, 최대 수요품목인 합성수지의 내수出荷는 전년동기대비 2.5% 증가에 그쳐 전월에 이어 9월에도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한편 수출은 전품목이 호조를 보여 物量基

석유화학 (千M/T, %)

	1995. 9월		1996.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産	763	7.2	7.2	864	△1.5	13.2	7,274	7.7
· 出 荷	774	8.6	8.6	904	5.6	16.8	7,198	9.1
(內 需)	483	△6.4	0.2	554	0.0	14.7	4,597	4.2
(輸 出)	291	37.3	26.0	350	15.5	20.3	2,601	18.9

準으로 전년동월대비 20.3%의 급증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합성고무를 제외한 다른 품목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여 금액기준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소폭의 증가에 그쳤다.

〈비금속 광물〉

9월중 시멘트 생산과 내수는 정부발주의 大型 관급공사가 활발해짐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8.1%, 12.7% 증가한 5백8만5천M/T, 5백3십7만8천M/T을 기록하였다. 금년들어 계속된 내수증가세로 인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5.5% 감소한 4만2천M/T,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97.2% 증가한 35만5천 M/T을 각각 기록하였다.

쌍용(주)는 유연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세계 최대의 에너지화학그룹인 「셀」과 함께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호주의 다투 부룩 유연탄광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멘트제조에 사용되는 연료로는 B-C油와 유연탄이 대표적으로 2차 석유파동 이후 유연탄 사용이 急増하여 우리 나라 시멘트업계의 유연탄 사용률도 작년의 경우 96%에 이르고 있어 연료공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월중 板유리의 내수는 건축용 수요가 둔화된 가운데 전반적인 경기하강으로 가전제품, 가구 등 산업용과 실내장식용 등 일반加工用 수요도 점차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8.9% 감소한 1,832천C/S로 나타났으나 생산은 업계의 생산능력의 증가확대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한 1,870천 C/S로 기록되었다.

최근 水質오염이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면서 각종 환경관련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판유리가공업계는 폐수처리를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판유리가공업계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된다.

특히 그간 별다른 처리시설없이 폐수를 방류해 왔던 예칭유리나 거울제조 업체의 경우 불산이나 수은 등 人體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완벽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등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이보다 더 영세한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대신 필터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千M/T, %)

	1995. 9월		1996.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生 産	4,304	△3.3	△2.9	5,085	0.6	18.1	41,797	4.9
· 出 荷	4,847	12.6	12.6	5,420	4.0	11.8	43,538	5.9
(內 需)	4,770	13.0	13.0	5,378	4.8	12.7	42,939	5.3
(輸 出)	77	△7.2	△7.2	42	△48.1	△45.5	644	△17.3

〈섬 유〉

9월중 국내섬유산업은 수출 및 내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생산활동이 위축되고 재고가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한 1,47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品目別로는 섬유원료의 수출이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국으로 부터의 수요가 활발하지 못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3.9% 감소한 74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섬유제품의 수출은 미국 및 일본 지역의 의류수출부진이 심화되면서 전년동월 대비 18.7% 감소한 451백만달러에 그쳤다.

반면에 3/4분기초부터 두자리수의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섬유사는 중국 및 홍콩지역에 대한 수출이 전년동월에 비하여 각각 56.0%, 17.9% 늘어난 데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22.5% 증가한 125백만달러를 기록하였

으며, 직물류도 폴리에스터직물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나일론 및 면직물의 수출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한 822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입은 국내경기위축에 따라 섬유원료 등 수출용 원자재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입증가율이 둔화,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450백만달러에 머물렀다. 그러나 원자재도입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성제품인 의류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월에도 전년동월 대비 33.4% 늘어난 157백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최근 TPA, EC 등 합섬원료가격의 하락세로 인하여 국내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의 채산성이 좋아지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 수출부진을 겪었던 화섬직물업체의 수출이 하반기부터 다소 개선되고 중국으로 부터의 원사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원사가격이 상승하는 등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의 경영환경이 호전되고 있다.

섬 유 (단위 : 백만불, %)

	1995. 9월		1996.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수 출	1,524	△1.6	3.5	1,472	0.0	△3.4	13,336	△4.0
섬유원료	86	△8.5	27.4	74	19.0	△13.9	628	△15.3
섬 유 사	102	0.0	23.2	125	4.2	22.5	1,050	4.7
직 물	781	2.6	11.3	822	1.9	5.2	7,666	1.9
섬유제품	555	△6.3	△10.6	451	△5.3	△18.7	3,992	△13.6

〈조 선〉

9월중 국내조선업체의 新造船수주량은 전년동월대비 58.4% 감소한 7척 345천G/T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금년도 3/4분기 까지 총수주량은 78척 3,014천G/T로서 전년동기 대비 34.5%의 감소를 보였다.

3/4분기 까지 수주가 不振한 것은 국내업체들이 원재료 등 원가상승요인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반면, 일본업체들은 엔低현상의 지속으로 가격경쟁력의 급격한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4분기 까지 수주실적을 船種別로 보면 컨테이너船이 45척 1,254천G/T로서 전체 수주량의 41.6%를 차지하였고, 탱커와 벌크캐리어가 각각 14척 1,024천G/T, 11척 640천G/T로서 전체 수주량의 34.0%, 21.2%를 占하였다.

9월중 건조실적은 일부 업체의 조업차질로 전년동월대비 43.1% 감소한 12척 372천G/T을 기록하였으나, 3/4분기까지 총건조량은 상반기까지의 활발한 조업활동에 힘입어 117척 5,247천G/T을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40.8%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受注殘量은 9월중 수주부진으로 전월의 272척 11,694천G/T에서 267척 11,677천G/T로 약간 줄었으나, 전년동기대비로는 12.3%나 낮아진 수준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일감이 다소 떨어진 실정이다.

세계조선시장은 당초乾貨物市況의 불황으로 컨테이너船과 벌크캐리어의 수주가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예상외로 日本, 中國,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활발한 수주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까지 이들 船種의 수주량이 6,158천G/T(전체 수주량의 59.8%)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탱커는 전체 수주량의 14.6%인 1,499천G/T를 기록하는 부진을 보였으나 9월말까지 VLCC가 15척 발주되었으며 최근에도 20여척 정도의 VLCC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등 수주환경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96년 7월중 발효될 예정이었던 OECD다자간조선협정은 그 동안 미국의 국회비준문제로 지연되어 왔는데 최근 미국의 회와 업계대표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당분간 新造船價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국내 조선업계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선 (千G/T, %)

	1995. 9월			1996. 9월			累 計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月比	前年同月比		前年同月比	
• 受 注	830	161.0	53.7	345	△38.8	△58.4	3,014	△34.5
• 建 造	654	3.3	1.7	372	△27.1	△43.1	5,247	40.8
• 受注殘量	13,310	△1.1	15.4	11,677	△0.1	△12.3	11,677	△12.3

<해 운>

9월중 해운市況은 乾貨物 종합運貨指數(MRI)가 곡물 및 철광석의 물동량 감소로 전월의 229.1에서 220.1로 3.9% 하락하였으며, 탱커運貨指數(WS)도 페르시아灣의 傭船계약량 감소로 前月の 69.7에서 12.9포인트 떨어진 56.8을 기록함으로써 前月に 이어 약세가 계속 되었다. 1~9월중 해운시장은 건화물시황이 '95년 10월 이후 발탁운임지수(BFI)의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1,000이 무너지는 등, 10년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으며, 탱커市況은 5~7월중 한국, 일본 등의 원유도입 증가로 운임이 상승하였으나 8월 이후에는 油價상승에 따른 수요감소와 船腹 과잉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등 대체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건화물시황의 이러한 不況은 수요 측면에서 유럽 및 日本의 경기침체로 철광석과 석탄수요도 감소한데다 최근에는 中國의 곡물수요가 감소한 반면 건화물 선복량은前年對比 약 3%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96년 6월말 현재 국적외항선사들의 1척당 평균톤수는 29,363G/T으로서 '91년의 21,512G/T에 比하여 3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年末에는 VLCC와 초대형 광탄선, 5,000TEU급 이상 슈퍼컨테이너船의 인도량 증가로 30,000G/T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적외항선사들의 평균 톤수증가는 그간 규모의 경제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

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선대대형화를 추진한 결과이며, 현재의 평균톤수 29,363G/T은 세계商船隊의 평균톤수 10,616G/T의 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船種別 1척당 평균톤수를 보면 LNG船이 99,177G/T으로 가장 크며, 유조선이 99,102G/T, 광탄선 87,933G/T, 풀컨테이너船 23,726G/T, 벌크캐리어가 22,282G/T인 것으로 나타났다.

三.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나라 최근 산업별동향을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우리 경제는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더우기 수출에 있어서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사치품성의 고가소비재 등의 수입증가로 무역수지의 적자폭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 가고만 있다.

10월중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13.1억 달러로 전년동월에 비하여 44.4%나 크게 감

소하였으나 다행히 반도체 이외의 수출이 118.9억달러로 3.2% 증가하여 1~10월중 전체수출은 1,065.1억달러에 이르러 4.6%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9月中 品目別 수출을 살펴보면 국제가격하락의 지속으로 반도체 및 철강이 부진한데다 선박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8.1% 감소한 100.9억달러에 머물러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1~9월중 전체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한 946.1억달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10월중 수입은 원자재의 경우 원유의 수입이 대폭 증가한 반면, 철강제품의 수입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자본재는 항공기, 전자부품 등의 수입증가로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며, 소비재는 소비수요의 고급화에 따른 승용차, 화장품 등의 지속적인 수입증가로 높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한 134.6억달러를 나타냈으며, 1~10월중 전체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0.6% 증가한 1,232.9억달러를 기록하였다.

品目別 輸出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5. 9		95. 1~9		96. 8		96. 9p		96. 1~9p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金 額	增減率
消 費 財	2.4	9.5	20.9	19.6	2.5	21.0	2.5	2.3	23.3	11.4
原 料 및 燃 料	4.2	22.7	35.6	32.4	5.6	16.5	5.1	22.4	44.1	23.9
輕 工 業 製 品	24.5	13.7	219.6	16.3	24.9	2.5	25.9	5.5	237.1	8.0
織 維 類	14.3	2.9	130.4	8.1	14.1	△2.3	14.0	△1.9	127.3	△2.4
신 발 類	1.0	△13.3	9.2	△18.1	0.6	△30.3	0.7	△30.4	6.7	△27.7
旅 行 用 具	0.5	△8.7	5.2	△1.0	0.4	△28.2	0.4	△18.0	4.2	△19.0
重 化 學 工 業 製 品	78.7	39.9	627.0	42.8	64.2	△14.3	67.4	△14.2	641.6	2.3
化 工 品	5.9	25.0	54.3	62.6	5.5	△7.4	6.1	2.7	52.2	△3.8
鐵 鋼	7.7	16.2	76.1	35.2	5.8	△22.5	5.8	△24.6	53.4	△29.9
機 械	11.9	36.0	97.0	36.2	11.1	△0.2	12.5	5.5	108.2	11.5
電 子	24.0	49.5	184.4	46.0	17.8	△25.4	19.0	△20.8	179.5	△2.6
自 動 車	7.1	71.7	64.2	74.1	7.8	23.5	9.5	32.4	77.9	21.4
船 舶	7.1	35.8	37.5	25.0	4.5	△24.6	3.0	△57.3	47.7	27.3
統 計	109.7	32.2	903.1	34.3	97.2	△8.4	100.9	△8.1	946.1	4.8

品別輸入

(通關, 억달러, 前年同期比, %)

	95. 9		95. 1~9		96. 8		96. 9p		96. 1~9p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金額	增減率
消費財	12.0	25.9	103.0	31.9	15.7	22.1	13.8	14.8	124.0	20.3
原資材	57.4	33.4	495.5	34.7	60.4	4.7	55.2	△3.8	547.2	10.4
原油	10.0	22.4	80.8	28.6	12.7	49.7	12.3	23.1	98.4	21.7
輕工業原料	5.8	29.9	50.4	30.9	4.9	△19.6	4.4	△23.6	45.5	△9.7
化工品	6.5	18.9	62.4	32.9	7.1	△0.2	6.5	△0.3	64.5	3.3
鐵鋼材	6.8	85.1	47.1	33.5	5.5	△19.5	4.3	△36.9	52.3	11.0
資本財	46.8	31.7	398.5	39.9	53.4	19.9	44.9	△4.0	427.1	7.2
機械	18.0	17.0	172.1	43.5	22.1	19.4	18.6	3.6	183.5	6.6
電氣·電子	16.8	34.0	142.9	41.3	17.9	4.7	16.3	△3.1	154.9	8.4
輸送裝備	6.9	116.1	37.4	35.9	6.6	55.7	4.1	△41.0	36.4	△2.7
內需用	77.5	31.2	665.4	32.5	89.9	14.2	76.3	△1.5	740.5	11.3

한편 9월중 품목별 수입은 소비재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이 모두 감소로 反轉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113.9억달러에 머물렀으며, 1~9월중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한 1,098.2억달러를 기록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재는 4.0%, 원자재는 3.8%가 각각 감소한 반면 식료 및 소비재의 수입이 14.8% 증가하여 이 부문의 수입역제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9월중 경상수지는 수출부진에 따른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된 데다 무역외수지마저 큰폭의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赤字幅이 전년동월에 비하여 7.5억달러 늘어난 14.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무역수지는 수입의 경우 원자재와 자본재를 中心으로 소폭 줄었으나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 철강, 선박 등의 부진심화로 크게 감소하여 전년동월보다 3.0억달러 늘어난 8.1억달러의 적자를 보였다.

무역외수지는 무역외지급이 해외여행의 증가세 둔화, 기술용역비의 지급감소 등으로 전년동

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나 무역외收入이 화물운임, 관광여행 수입 등의 부진으로 감소함에 따라 5.1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어 전년동월의 △4.1억달러 보다 적자폭이 늘어났다.

따라서 1~9월중의 경상수지는 170.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는 전년동기의 △80.8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수입은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경상수지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 당초의 다소 낙관적인 예상보다 우리경제는 더 어려운 침체국면을 맞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제수지

(억달러)

	95.9	95.1~9	96.8p	96.9p	96.1~9p
經常收支	△7.5	△80.8	△35.2	△14.1	△170.9
貿易	△3.0	△51.1	△28.8	△8.1	△108.4
貿易外	△4.1	△25.9	△6.0	△5.1	△54.9
移轉	△0.5	△3.7	△0.5	△0.9	△7.5
長期資本收支	11.4	55.6	10.8	11.8	81.6
短期資本收支	△0.8	44.3	0.2	△12.4	54.7
綜合收支	3.4	10.3	△22.3	△10.5	△46.2